

90년대 초반의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평가

朴松東*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산업간이나 산업내에서 부단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변화가 심할수록 구조조정도 크게 이루어진다.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산업구조조정이 어떠하였는 지를 수출 구조, 투자, 부가가치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고비용화, 경쟁력 변화 등이 구조조정을 야기

90년대 초반에 산업구조조정을 유발한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높은 생산 요소 비용의 상승과 수출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임금 수준은 89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왔다. 특히 인건비 증가율이 높았던 업종은 기타수송장비, 나무제품, 종이제품, 정밀기기, 섬유 등으로 대부분이 경공업이나 노동 집약 업종이다. 이러한 인건비

의 상승은 자본 집약화 및 기술 집약화를 촉진하지만 자본 집약화나 기술 혁신의 여지가 적은 산업(주로 전통 산업)을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퇴출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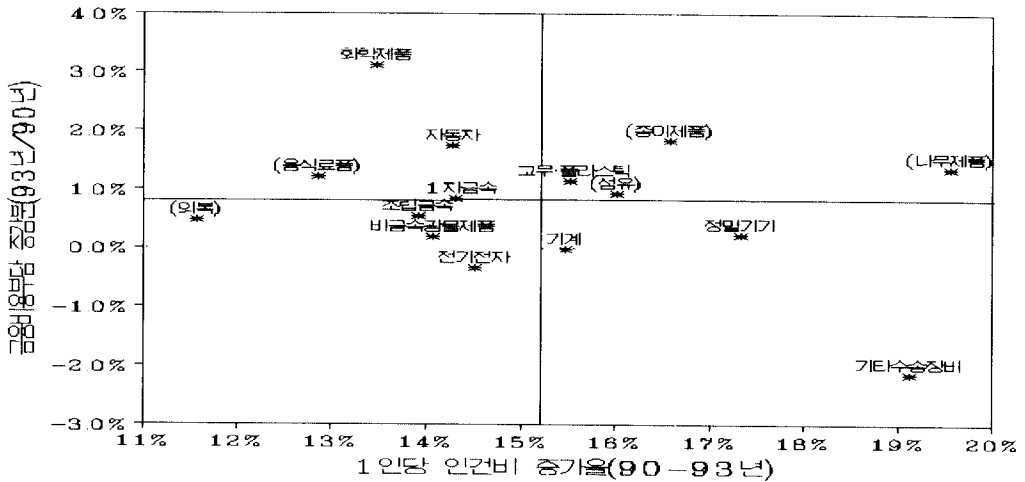
또한 금융 비용 부담이 증대된 업종으로는 화학제품, 자동차, 종이제품, 음식료품, 나무제품, 고무·플라스틱, 섬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금융 비용 부담의 증대는 구조조정을 원활케 하는 하나의 요인인 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므로 금융 비용 부담이 증대된 산업은 그만큼 축소 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인건비와 금융비 등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대된 업종은 그만큼 고부가가치화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축소 조정되어진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종이제품, 섬유, 고무·플라스틱, 나무제품 등 대부분이 경공업에 속하는 업종들이다.

수출 구조도 수출 경쟁력의 약화와 후발개도국의 급부상으로 크게 변화되어 왔다.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무역 전공.

<그림 1> 업종별 금융비 및 인건비 부담 정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4.

주: 1) 전기전자는 영상·음향·통신장비를, 정밀기기는 의료·정밀·광학기기를, 자동차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화학제품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의미함.

2) ()는 경공업임을 의미함.

3) 금융비용 증감분 = (금융비용/매출액)_{93년} - (금융비용/매출액)_{90년}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생산비 상승과 원화 환율 절상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 또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중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급신장되면서 일반 화섬, 의류, 제화, 단순 전자제품 등 노동집약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소득 탄력성이 낮은 제품들의 수출 시장이 이들 후발 개도국에 의해 크게 잠식되고 있다.

93년 경쟁력 상황을 보면, 전기전자, 조립금속, 고무·플라스틱, 의복, 섬유 등의 업종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조립금속, 나무제품, 의복, 음식료품 등의 경쟁력은 90

년에 비해 약화되었다.

인건비, 금융 비용 부담, 경쟁력 변화 등이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 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단, 자료 상의 문제로 수출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살펴본다.

91~93년 중에 1차 상품과 경공업 제품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연평균 14.0%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다.

경공업 제품 중 신발, 완구 및 인형 등의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섬유류의

경쟁력지수 $[=(수출-수입)/(수출+수입)]$

구분	1990년	1993년
정밀기기	-45%	-45%
전기전자	25%	25%
기계	-25%	-25%
조립금속	15%	15%
1차금속	5%	5%
비금속광물	-25%	-25%
고무, 플라스틱	25%	25%
화학제품	-45%	-45%
(중화학제품)	-45%	-45%
(비중화학제품)	-85%	-85%
(의복)	90%	90%
(섬유)	35%	35%
(음식료품)	-10%	-10%

주: 업종 분류는 HSK 2단위 기준임.

<표 1> 주요 산업별 수출 실적

	1990년		1993년		94.1~9월		91~93년 년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 차 산 품	3,246	5.0%	3,211	3.9%	2,623	3.9%	-0.4%
경공업제품	25,055	38.5%	24,672	30.0%	19,376	28.7%	-0.5%
섬 유 류	14,670	22.6%	15,877	19.3%	12,811	19.0%	2.7%
신 발	4,307	6.6%	2,309	2.8%	1,345	2.0%	-18.8%
완구및인형	726	1.1%	276	0.3%	150	0.2%	-27.6%
타 이 어	873	1.3%	1,132	1.4%	883	1.3%	9.0%
중화학제품	36,715	56.5%	54,354	66.1%	45,399	67.4%	14.0%
철강 제품	4,237	6.5%	6,613	8.0%	4,087	6.1%	16.0%
일반 기계	1,775	2.7%	3,055	3.7%	2,820	4.2%	19.8%
전기, 전자	17,870	27.5%	24,233	29.5%	22,071	32.7%	10.7%
자 동 차	1,920	3.0%	4,493	5.5%	3,384	5.0%	32.8%
수 출 총 계	65,016	100%	82,236	100%	67,398	100%	8.1%

20 / 기업경제 1994년 11월

제품의 수출 비중은 90년에 38.5%에서 93년에는 30.0%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섬유류와 신발의 수출 비중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반면, 중화학 제품의 수출 비중은 90년 56.5%에서 93년 66.1%로 크게 증대되었고, 일반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 중화학 제품 대부분의 수출 비중이 증대되어 왔다.

제조업 축소와 서비스업 비대화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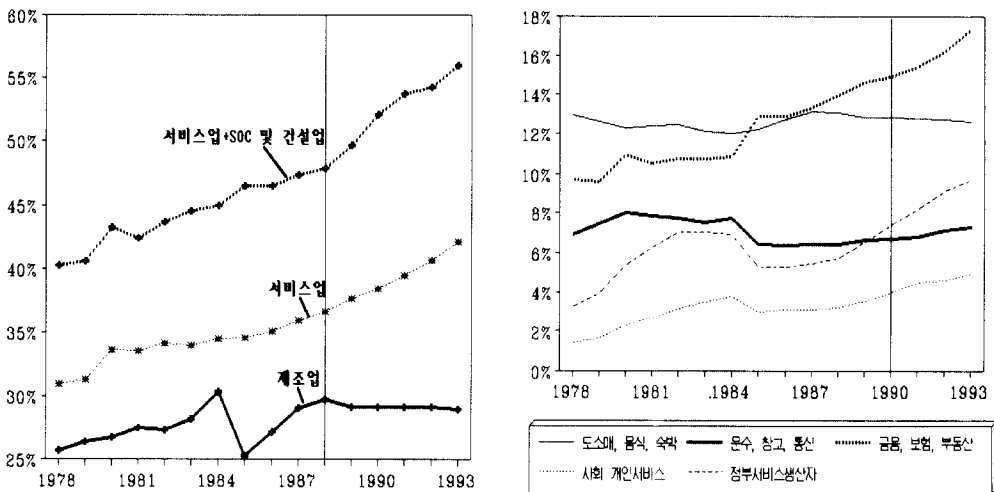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70년대 이후 공업화와 서비스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90년 이후 최근 몇년간의 산업구조

를 살펴보면 서비스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은 축소되어 왔다.

88년까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제조업의 비중은 89년 이후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원화 절상, 임금 급상승 등이 이루어진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반면, 서비스업과 SOC 및 건설업의 비중은 특히 90년대에 들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는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정부서비스 생산자와 사회 개인 서비스

<그림 3> 산업별 GDP 비중 및 서비스업 부문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

주: 불변 가격 기준 GDP 대비 비중임.

된 운수·창고·통신업의 비중은 보험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비중 증대도 제조업 지원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는 쪽으로 진전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중화학공업에서는 확장적, 경공업에서는 축소지향적 구조조정 진전

나무제품, 조립금속, 섬유, 고무·플라스틱, 종이제품 등은 낮은 생산 증가율을 보여 이들 업종의 제조업내 생산 비중이 감소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기타수송장비, 1차금속,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계 등은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여 제조업내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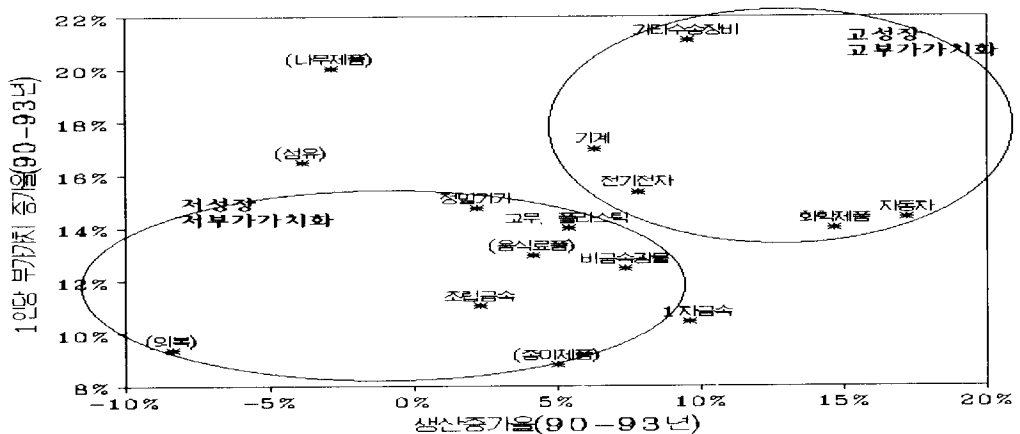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로 본 고부가가치

화의 진전 정도를 보면, 기타수송장비, 나무제품, 섬유,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제품 등은 그 진전 속도가 빠른 업종이고, 의복, 종이제품, 1차금속, 조립금속 등은 진전 속도가 느린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성장성이 크고,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증대된 업종이 기타수송장비,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제품 등 중화학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어 90년대 초반의 산업구조조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업종별 설비 증강 투자를 보면, 전기전자, 기타수송장비, 자동차, 1차금속, 기계, 정밀기기 등에서는 설비 증강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던 반면, 비금속광물, 종이제품,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는

<그림 4> 업종별 성장성 및 부가가치 변화 정도



주: <그림 1>의 주 참조.

설비 증강 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기전자, 기타수송장비, 자동차, 1차금속, 기계 등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에서는 고성장·고투자의 확장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나무제품, 종이제품, 음식료업 등 대부분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중 고무·플라스틱, 조립금속 등에서는 저생산·저투자로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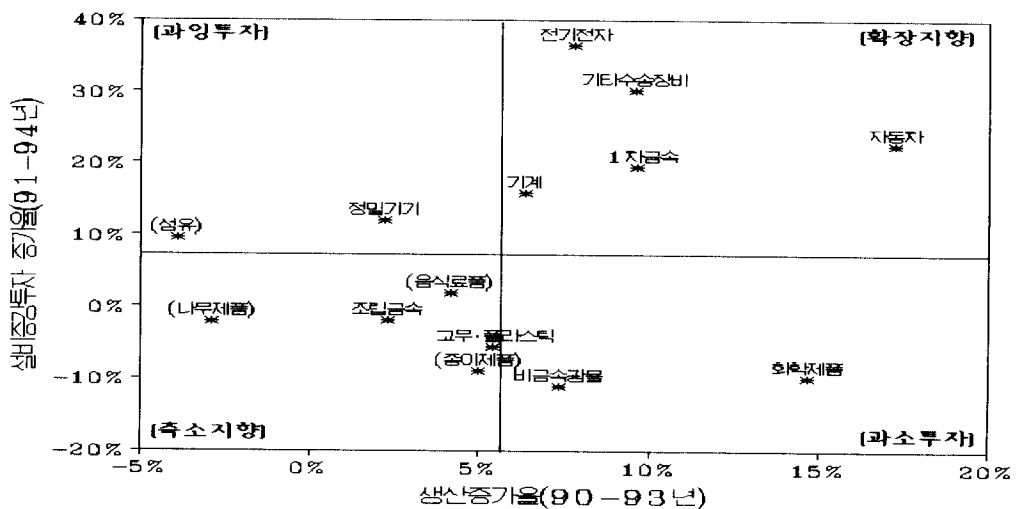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생산이 크게 증가된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에서는 그 만큼 설비증강이 따르지 못하는 과소 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화학제품 산업에서의 투자

부진은 최근 일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에 의한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섬유, 정밀기기 등에서는 생산 부진에 비해 설비증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기술 집약화의 부진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국내 기업들의 투자 패턴은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질적 개선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93년에 이루어진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보면, 설비 능력 증가(총 설비 투자 대비 63.9%)에 치중하여 연구 개발 투자

<그림 5> 업종별 생산 및 설비 증강 투자 증가율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호.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주: 1) <그림 1>의 주 참조.

2) 94년 설비증강투자 증가율은 94년 계획치임.

(8.4%)나 자동화 투자(5.6%)는 크게 미흡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는 전반적으로 기술 집약화나 고부가가치화가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기타수송장비, 자동차, 비금속 광물제품, 종이제품, 나무제품 등의 업종에서는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 개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무·플라스틱, 섬유, 음식료품, 화학제품, 1차금속, 조립금속 등에서는 연구 개발 투자의 증가율이 매우 낮았다.

합리화 투자에서는 고무·플라스틱, 기

타수송장비, 자동차, 기계 등의 업종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밀기기, 1차금속, 종이제품, 나무제품, 음식료품 등에서는 비저적 높은 생산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화 투자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고성장·고부가가치 업종군과 연계해 보면, 고성장·고부가가치 업종군 중에서 기술 집약화가 크게 진전된 업종은 기타수송장비, 자동차 등이고,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계 업종 등은 고성장·고부가가치 업종군이면서도 기술 집약화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업종별 성장률 비교

(%)

	실적치			7차 5개년 계획 상 92~96년 년평균 성장률
	1992년	1993년	94년 상반기	
음식료업	-1.6	3.2	4.5	7.2
섬 유	-4.8	-13.0	-1.3	6.0
화 학	14.8	9.4	10.2	10.9
1차금속	5.1	13.3	6.3	7.1
일반기계	1.8	2.2	24.1	15.4
전기전자	3.3	9.8	13.9	14.9
자 동 차	7.4	13.5	22.9	11.0

자료: 경제기획원, 「7차 5개년 계획 산업정책 계획」, 1992.

한국은행, 「국민계정(잠정)」, 각호.

주: 1) 90년 불변가격 기준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2) 94년 상반기의 성장률은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의 단순 평균치임.

3) 실적치에서의 업종 분류는 섬유는 섬유 및 의복, 1차금속은 1차철강, 일반기계는 산업기계, 자동차는 수송장비임.

- 1) 일본 기업의 설비 투자를 보면 93년에 설비 능력 증가 투자는 33.5%에 그쳤고, 연구 개발 투자는 8.7%, 자동화 투자는 17.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빠른 사양화 속에서 고도화는 정부 기대에 못 미쳐

7차 5개년 계획 상에서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기술 집약 산업이 각각 연평균 14.9%, 15.4%, 11.0%로 증가하면서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음식료업, 섬유 등 재래 산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일층 진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식료업, 섬유 등 전통 산업의 경우 성장률이 매우 낮아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은 정부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구조 고도화가 예상밖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사양화 대책과 구조 고도화 전략이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 90년대 초반의 산업구조 조정은 고비용화, 경쟁력 약화 속에서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 기술 집약적인 업종이 고성장·고부가가치화 업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서비스화나 제조업의 비중 축소, 기술 집약화 및 구조 고도화의 부진, 전통 산업의 빠른 사양화 등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소하면서 구조 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사양화 대책과 구조 고도화 전략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양화 대책으로는 사양 업종에서 호황 업종으로 노동력의 재배치를 원활히 하여 업종간 노동 수급 이원화를 극대화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 효율적인 업종 전환이나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조 고도화 전략은 기술 개발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서, 우선 제조업의 환경 설비 설치 비용이나 공과금 등과 같은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²⁾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기술 개발 투자 여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의 기술 개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반 기술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이나 투자 활동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기업 스스로가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2) 93년 중에 중소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연간 준조세는 연구 개발비의 2.4 배나 되는 5,60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0.94%이고, 이는 90년의 0.8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중소기업협동조합, 「준조세 부담 실태」, 1994. 10.)